

보도일시

2025.5.27.(화)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제가 200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덕담이지만, 22년 뒤에 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잘 실천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 새기게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03년 7월 20일 개최된 「대통령과학장학생과의 다과회」의 일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발언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천호선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참여기획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증언과 2003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의 다과회」 관련 기록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110여명의 장학생들을 연설을 통해 격려하였을 뿐, 특별히 이준석 후보에게만 직접 덕담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저한테 직접”, “저에게”란 표현을 사용하여 노 전 대통령이 마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

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상벌’, ‘경력’ 등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17년 방송에서 자신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고, 줄곧 보수정당에 몸담아 온 이준석 후보의 정치이력이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덕담을 “잘 실천하겠다”라는 발언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퇴행시키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끝>